

안철수 사퇴 이후 안철수 지지자의 표심변화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2년 12월



안철수 사퇴 이후 안철수 지지자의 표심변화

정한울_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2012. 12. 1

본 보고서는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의 <18대 대선 선거패널조사(KEPS : Korean Election Panel Studies)> 제3차 조사(11.25-27)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수치는 대선 2차 조사(10.11-14)와 3차 조사(11.25-27)에 모두 참여한 1302명에 대한 분석결과다. SBS와 중앙일보에 보도된 다자 대결 지지율은 3차 조사에 참여한 1416명의 응답결과로서 본 조사의 결과와 1%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다.

1. 10월 3자 경선 국면에서 안 후보 사퇴 이후 여론변화

(1) 다자구도 기준

[10월] 박 : 문 : 안 : 기타 : 미정 = 38.2 : 24.7 : 27.6 : 0.6 : 9.0

[11월] 박 : 문 : 다른 후보 : 미정 = 45.3 : 43.3 : 1.2 : 10.2

- 안철수 후보 10월 지지자 359명 중 64.1% 문 지지, 15.0% 박지지, 18.7% 미정

다자대결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는 전월 대비 7.5%p 상승한 45.3%, 문 후보는 18.6%p 상승한 43.3%로 2% 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미결정층은 큰 변화가 없다. 10월 조사에서 24.7%의 지지를 받았던 안철수 후보의 사퇴로 양자 대결구도로 전환한 것이다.

최근 언론에 소개된 안철수 지지표의 이동 경로에 대한 보도들은 모두 일반 여론조사에서 “후보 사퇴 이전에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기억하여 답하게 하는 회상(recall) 응답을 기준으로 현 조사에서의 지지이동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따라 안철수 지지자의 45%~70%까지 다양한 지지유지율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¹⁾

본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10월 2차 대선패널조사(10.11-14일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497명 중 94.8%가 이번 조사(11월 25일-27일)에서도 박근혜 후보 지지를 표명했고, 지난 달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321명 중 89.7%인 288명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유지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359명 중에서 64.1%가 문재인 후보 지지로, 15.0%는 박근혜 후보지지로, 18.7% 미정으로 2.2%가 이정희 후보 등 다른 후보 지지로 이탈했다.

1) 그러나 이러한 회상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조사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갖는다. 우선 회상의 시점이 응답자마다 지지 후보 선택의 시점이 달라 변화량을 추적하기 위한 기준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회상 응답은 현재 시점 응답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과거시점의 선호에 거짓응답 현상이 반영된다는 점에서도 부정확하다. 참고자료로는 활용하되 정확한 기준 시간 동안 변화량을 추적하는 방법으로는 동일한 질문대상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조사하는 패널조사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정받는다.





[표1] 다자구도 표의 이동(%) : 2차 조사(10.11 - 14)→3차 조사(11.25-27)

○ 2차 다 자 대 결 ○ * 3차 본선구도 Crosstabulation

		3차 본선구도				Total	
		박근혜	문재인	다른 후보	지지후보없음		
2차 다 자대결	박 근 혜	Count	471	14	0	12	497
		% within ○ 다 자 대결 ○	94.8%	2.8%	.0%	2.4%	100.0%
		% within 3차 본선구도	79.8%	2.5%	.0%	9.0%	38.2%
	문 재 인	Count	21	288	0	12	321
		% within ○ 다 자 대결 ○	6.5%	89.7%	.0%	3.7%	100.0%
		% within 3차 본선구도	3.6%	51.1%	.0%	9.0%	24.7%
	안 철 수	Count	54	230	8	67	359
		% within ○ 다 자 대결 ○	15.0%	64.1%	2.2%	18.7%	100.0%
		% within 3차 본선구도	9.2%	40.8%	53.3%	50.4%	27.6%
	다 른 후 보	Count	2	2	3	1	8
		% within ○ 다 자 대결 ○	25.0%	25.0%	37.5%	12.5%	100.0%
		% within 3차 본선구도	.3%	.4%	20.0%	.8%	.6%
지 지 후 보 없 음	Count	42	30	4	41	117	
	% within ○ 다 자 대결 ○	35.9%	25.6%	3.4%	35.0%	100.0%	
	% within 3차 본선구도	7.1%	5.3%	26.7%	30.8%	9.0%	
Total	Count	590	564	15	133	1302	
	% within ○ 다 자 대결 ○	45.3%	43.3%	1.2%	10.2%	100.0%	
	% within 3차 본선구도	100.0%	100.0%	100.0%	100.0%	100.0%	

(2) 가상 양자대결과 본선 지지 기준

[10월] 박 : 문 : 미정 = 46.6 : 49.8 : 3.6, 박 : 안 : 미정 = 44.5 : 51.3% : 3.6%

[11월] 박 : 문 : 다른 후보 : 미정 = 45.3 : 43.3 : 1.2 : 10.2

안철수 후보 사퇴로 양강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경쟁력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 사퇴 이전의 가상 양자대결 구도와 비교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현재는 이정희 후보, 강지원 후보 등 군소 후보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의 지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양자대결 구도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박근혜 대 단일후보 문재인의 양자대결 구도에서는 46.6% 대 49.8%로 문재인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상황인데 박근혜 후보는 46.6%(607명)에서 45.2%(589명)으로 1.4%p 하락했고, 문재인 후보는 49.8%(648명)에서 43.3%(564명)으로 6.5%p 하락 하여 순위가 바뀐 셈이다. 동일응답자 대상의 지지율 변화라는 점에서 표본 집단 내에서는 실제 지지율 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초 야권이 기대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지지격차를 벌린다는 구상은 실현되지 못한 셈이다. 물론 전체 유권자 모집단의 지지분포로 보면 역시 오차범위 내라는 점에서 안 후보 사퇴이후 박빙의 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 달 전 양자대결 시 박근혜 가상 지지자 기준으로 보면 박 후보 지지 607명 중 88.1%(535명)이 지지를 유지했고, 그 중 5.8%가 문지지로, 미정인 부동층으로 빠진 비율은 5.9%, 기타 후보 지지로 돌아선 비율이 0.2%에 불과하다. 한편 문재인 후보의 경우 10월 조사 양자 대결시 문 후보 지지자 648명 중 80.5%(521명)가 지지를 유지했지만, 6.2%는 박 후보 지지로, 미결정 부동층으로





는 11.4%가 이탈했다. 박근혜 후보 지지자 중 미결정 부동층으로 이탈한 비율인 5.9%에 비해 많다. 전체적으로 문 19.6%가 이탈한 셈이다.

한편 10월 조사에서 박근혜 대 안철수 양자대결 구도 지지자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후보 지지자의 85.5%가 이번 조사에도 박근혜 후보 지지를 밝혔고,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탈한 비율이 9.1%였다. 그러나 지난 조사에서 단일후보 안철수 후보를 찍겠다고 답한 51.3%의 응답자 668명 중에서 73.5%가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전이 된 반면 박근혜 후보 지지로 11.2%, 미결정 지지층으로 13.6% 이전을 한 것이다. 2차 양자구도에서 안 지지자 중 3차 본선거구도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전한 비율이 높은 것은 이미 2차 양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응답자 중에는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포함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2] 박:문 가상 대결에서 실제 대선구도로 표의 이동 : 10월 양자→ 11월 본선 (wt 5차)

		2차 양자 : 문 * 3차 본선거구도 Crosstabulation					
		3차 본선거구도				Total	
		박근혜	문재인	다른 후보	지지후보없음		
2차 양자: 문	박근혜	Count	535	35	1	36	607
		% within 2차 양자 : 문	88.1%	5.8%	.2%	5.9%	100.0%
		% within 3차 본선거구도	90.8%	6.2%	6.7%	26.9%	46.6%
	문재인	Count	40	521	13	74	648
		% within 2차 양자 : 문	6.2%	80.4%	2.0%	11.4%	100.0%
		% within 3차 본선거구도	6.8%	92.4%	86.7%	55.2%	49.8%
2차 양자: 안	모름 / 무응답	Count	14	8	1	24	47
		% within 2차 양자 : 문	29.8%	17.0%	2.1%	51.1%	100.0%
		% within 3차 본선거구도	2.4%	1.4%	6.7%	17.9%	3.6%
Total	Count	589	564	15	134	1302	
	% within 2차 양자 : 문	45.2%	43.3%	1.2%	10.3%	100.0%	
	% within 3차 본선거구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3] 박:안 가상 대결에서 실제 대선구도로 표의 이동 : 10월 양자→ 11월 본선 (wt 5차)

		2차 양자 : 안 * 3차 본선거구도 Crosstabulation					
		3차 본선거구도				Total	
		박근혜	문재인	다른 후보	지지후보없음		
2차 양자: 안	박근혜	Count	496	53	1	30	580
		% within 2차 양자 : 안	85.5%	9.1%	.2%	5.2%	100.0%
		% within 3차 본선거구도	84.2%	9.4%	6.7%	22.4%	44.5%
2차 양자: 안	안철수	Count	75	491	11	91	668
		% within 2차 양자 : 안	11.2%	73.5%	1.6%	13.6%	100.0%
		% within 3차 본선거구도	12.7%	86.9%	73.3%	67.9%	51.3%
2차 양자: 안	모름 / 무응답	Count	18	21	3	13	55
		% within 2차 양자 : 안	32.7%	38.2%	5.5%	23.6%	100.0%
		% within 3차 본선거구도	3.1%	3.7%	20.0%	9.7%	4.2%
Total	Count	589	565	15	134	1303	
	% within 2차 양자 : 안	45.2%	43.4%	1.2%	10.3%	100.0%	
	% within 3차 본선거구도	100.0%	100.0%	100.0%	100.0%	100.0%	





2. 안철수 지지자 이탈유형 : 누가, 왜 이탈 했나

누가 문후보 지지로 유지되고, 누가 이탈했는가? 2차 다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자 360명 중 3차 본선 구도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밝힌 응답자를 ‘문 지지유지자’, 박근혜 후보 지지를 밝힌 사람을 ‘박 이탈자’, 기타후보 혹은 미결정(지지후보 없다)는 응답자를 ‘기타부동층’ 으로 분류하여 정치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누가 이탈했나? 정치사회적 배경

안 지지자 변화 유형 : 1. 안→문 유지자, 2. 안→박 이탈자, 3. 안→기타/부동 이탈자
[세대별] 2030 : 64.8% 유지, 40대 : 69.0% 유지, 5060세대 : 56.3%, 박 지지 23.8%
[지역별] 서울 : 59.5%, 경인 58.8%, 대구경북 54.5%, 호남 70.7%, PK 79.5%

먼저 세대별로 보면 문 지지유지자는 2030세대에서 64.8%, 40대에서 가장 높은 69.0%였다. 반면 5060세대에서는 56.3%에 불과했다. 대체로 전 세대에서 20% 내외가 기타 부동층으로 이탈한 반면 박 이탈자는 2030세대에서 13.3%, 40대에서 10.7%였다. 5060세대에서는 23.8%가 박 지지로 이탈하여 세대요인이 안 지지자 이탈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문 지지유지자는 부산경남지역에서 79.5%로 가장 높았고, 충청에서 71.4%, 호남에서는 70.7%로 PK 지역에 비해 8~9%포인트 가량 낮았다. 그에 반해 서울에서는 59.5%, 경인지역에서 58.8%, 대구경북지역에서 54.5%만 문지지로 이어졌다. 이탈자 중에서 대구경북, 부산울산지역에서는 박 이탈자 비율이 많은 편이고, 수도권에서는 박 이탈자 보다는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비율이 많았다.

세대 및 지역별 안지지자 표심변화 유형을 보면 대체로 5060, 영남지역 등 박근혜 후보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탈규모가 가장 컸고, 수도권이나 2030세대처럼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 지지가 강한 계층에서 이탈이 뒤를 이었고, 40대 및 PK 지역 등 문후보 강세 지역에서 문후보로의 지지이전 비율이 강했다. 박후보 지지세가 강한 계층에서는 박 이탈자 유형이, 안후보 지지세가 강한 계층에서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비율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발견된다. 다만 지역별 이탈유형의 경우 지역별 표본수가 너무 적어 절대적인 응답비율의 절대적 수치에 과도한 의미부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표4] 안 지지자 중 세대별 이탈유형(%)

연령3 * 지지변화4_5 Crosstabulation

		지지변화4_5			Total
		안->박	안->문	안->기타	
2030	Count	26	127	43	196
	% within 연령3	13.3%	64.8%	21.9%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48.1%	55.2%	56.6%	54.4%
연령3 40대	Count	9	58	17	84
	% within 연령3	10.7%	69.0%	20.2%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16.7%	25.2%	22.4%	23.3%
5060	Count	19	45	16	80
	% within 연령3	23.8%	56.3%	20.0%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35.2%	19.6%	21.1%	22.2%
Total	Count	54	230	76	360
	% within 연령3	15.0%	63.9%	21.1%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100.0%	100.0%	100.0%	100.0%





[표5] 안 지지자 중 지역별 이탈유형(%)

○ 거 주 지 역 ○ * 지지변화4_5 Crosstabulation

		지지변화4_5			Total
		안->박	안->문	안->기타	
서울	Count	13	47	19	79
	% within ○ 거 주 지 역 ○	16.5%	59.5%	24.1%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24.1%	20.4%	25.0%	21.9%
경인	Count	14	67	33	114
	% within ○ 거 주 지 역 ○	12.3%	58.8%	28.9%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25.9%	29.1%	43.4%	31.7%
충청	Count	4	25	6	35
	% within ○ 거 주 지 역 ○	11.4%	71.4%	17.1%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7.4%	10.9%	7.9%	9.7%
호남	Count	7	41	10	58
	% within ○ 거 주 지 역 ○	12.1%	70.7%	17.2%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13.0%	17.8%	13.2%	16.1%
대구 경북	Count	5	12	5	22
	% within ○ 거 주 지 역 ○	22.7%	54.5%	22.7%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9.3%	5.2%	6.6%	6.1%
부울경남	Count	7	31	1	39
	% within ○ 거 주 지 역 ○	17.9%	79.5%	2.6%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13.0%	13.5%	1.3%	10.8%
강원제주	Count	4	7	2	13
	% within ○ 거 주 지 역 ○	30.8%	53.8%	15.4%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7.4%	3.0%	2.6%	3.6%
Total	Count	54	230	76	360
	% within ○ 거 주 지 역 ○	15.0%	63.9%	21.1%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100.0%	100.0%	100.0%	100.0%

안지지자 변화 (문재인 지지 유지율) : 새누리지지/보수층, 무당파층 유지율 낮아
[정당지지] 새누리 : 19.2%, 민주 : 89.9%, 무당파 : 53.8% 문 지지, 31.7% 미정층
[이념별] 진보 : 73.2%, 중도 : 65.5%, 보수 : 48.1%만 문 지지로 유지

한편 정치적 변수에 따른 이탈 유형을 보면 정당지지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층 중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 중에서 19.2%만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전되었고, 76.9%가 박근혜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 중 민주통합당 지지자의 89.9%가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어져 역시 정당 지지성향은 안 후보 사퇴시 표심 이전을 좌우하는 핵심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무당파 중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층에서는 절반 수준인 53.8%만 문재인 후보 지지로 돌아섰고, 나머지 31.7%는 기타부동층으로 이전되었다.

이념별로는 진보성향의 안철수 지지자의 73.2%가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로 이어졌고, 중도성향의 안철수 지지층에서는 65.5%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유지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는 48.1%만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밝혔다. 진보, 중도층에서의 이탈자는 주로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반면, 보수성향의 안철수 지지 이탈자는 박근혜 후보 지지로 돌아선 비율이 기타부동층으로 돌아선 비율보다 많았다. 역시 기존의 정치적 성향이 안철수 후보 사퇴 이후 지지후보를 정하는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6] 정당 지지별 이탈유형(%)

5차 지지정당 * 지지변화4_5 Crosstabulation

		지지변화4_5			Total	
		안->박	안->문	안->기타		
5차 지지정당	새누리당	Count	20	5	1	26
		% within 5차 지지정당	76.9%	19.2%	3.8%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37.0%	2.2%	1.3%	7.2%
	민주통합당	Count	4	98	7	109
		% within 5차 지지정당	3.7%	89.9%	6.4%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7.4%	42.8%	9.2%	30.4%
	다른정당	Count	0	14	2	16
		% within 5차 지지정당	.0%	87.5%	12.5%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0%	6.1%	2.6%	4.5%
없음/모름/무응답	Count	30	112	66	208	
	% within 5차 지지정당	14.4%	53.8%	31.7%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55.6%	48.9%	86.8%	57.9%	
Total	Count	54	229	76	359	
	% within 5차 지지정당	15.0%	63.8%	21.2%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100.0%	100.0%	100.0%	100.0%	

[표7] 이념성향별 이탈유형(%)

5차 이념성향 * 지지변화4_5 Crosstabulation

		지지변화4_5			Total
		안->박	안->문	안->기타	
진보	Count	7	82	23	112
	% within 5차 이념성향	6.3%	73.2%	20.5%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13.0%	35.7%	30.3%	31.1%
중도	Count	23	108	34	165
	% within 5차 이념성향	13.9%	65.5%	20.6%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42.6%	47.0%	44.7%	45.8%
보수	Count	24	39	18	81
	% within 5차 이념성향	29.6%	48.1%	22.2%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44.4%	17.0%	23.7%	22.5%
모름/무응답	Count	0	1	1	2
	% within 5차 이념성향	.0%	50.0%	50.0%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0%	.4%	1.3%	.6%
Total	Count	54	230	76	360
	% within 5차 이념성향	15.0%	63.9%	21.1%	100.0%
	% within 지지변화4_5	100.0%	100.0%	100.0%	100.0%





[안지지자 10월 지지선호] 10월 조사에서 박 : 문 가상대결 20.8%는 박 지지, 75.3%는 문 지지
 - 문 지지유지자 : 89.6%가 한 달 전 이미 문재인 지지의사
 - 박근혜 이탈층은 10월 조사에서 75.9%가 박 : 문 대결시 박 지지 의사
 - 기타부동층 이탈층은 10월 조사에서 18.4%가 박 지지, 72.4%가 문 지지의사

한 달전 안철수 지지자의 75.3%는 10월 조사에서 박 대 문 가상 양자대결에서 문 지지 의사를 밝힌 층이다. 문 지지유지층은 89.6%가 이미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 시 문재인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후보로 이탈한 층은 반대로 75.9%가 일대일 대결 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로의 이탈은 어느 정도 예상된 진로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기타 부동층으로 이탈한 층인데 이들은 한달 전만 하더라도 72.4%가 문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던 층인데 이번 조사에서 기타후보나 미결정 부동층으로 이탈한 셈이다. 현재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지지층 흡수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바로 이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층이라고 볼 수 있다.

[표8] 안 지지이탈유형 별 10월 박 : 문 가상대결 선호

지지변화4_5 * 4. 이번 대통령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박근혜 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나온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Crosstabulation

		4. 이번 대통령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박근혜 후보, 야권단일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나온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문재인	기타/없음/모름/무응답	Total	
지지변화4_5	안->박	Count	41	10	3	54
	% within 지지변화4_5	75.9%	18.5%	5.6%	100.0%	
	10월 조사 박 : 문 지지	54.7%	3.7%	21.4%	15.0%	
지지변화4_5	안->문	Count	20	206	4	230
	% within 지지변화4_5	8.7%	89.6%	1.7%	100.0%	
	10월 조사 박 : 문 지지	26.7%	76.0%	28.6%	63.9%	
지지변화4_5	안->기타	Count	14	55	7	76
	% within 지지변화4_5	18.4%	72.4%	9.2%	100.0%	
	10월 조사 박 : 문 지지	18.7%	20.3%	50.0%	21.1%	
Total	Count	75	271	14	360	
	% within 지지변화4_5	20.8%	75.3%	3.9%	100.0%	
	10월 조사 박 : 문 지지	100.0%	100.0%	100.0%	100.0%	

(2) 왜 이탈했나? 아름다운 단일화의 실패와 가정경제 침체가 부동층 이탈 요인

안 지지자 358명 단일화 평가 “부정적이다” 65.0%
 안->문 유지자 51.7%(119명/230명) “부정적이다” , 47.0% “긍정적이다”
 안->박 이탈자 92.5%(50명/54명), 안->기타/부동층 85.5%(65명/75명) “부정적”

안철수 지지자의 65.0%가 안철수 사퇴의 직접적 계기가 된 단일화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특히 기타 부동층으로 이탈한 이탈자의 85.5%가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박 이탈자의 부정적인 평가 92.5%에 육박할 정도였다. 심지어 문 지지유지자 중에서도 단일화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47.0%, 부정적인 응답이 51.7%로 나타나 단일화 과정이 아름다운 단일화로 귀결되지 못한 것이 주된 이탈요인이 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표9] 안철수 지지층 이탈유형별 후보단일화에 대한 평가(%)

지지변화4_5 * 6. 문재인씨와 안철수 씨가 단일화를 논의하였고, 안철수 씨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일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rosstabulation

		6. 문재인씨와 안철수씨가 단일화를 논의하였고, 안철수씨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일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긍정적이다	②대체로 긍정적이다	③대체로 부정적이다	④매우 부정적이다	모름/무응답	Total
	Count	2	2	26	24	0	54
	안→박 % within 지지변화4_5	3.7%	3.7%	48.1%	44.4%	.0%	100.0%
	단일화 평가 별	14.3%	1.9%	16.7%	30.8%	.0%	15.0%
지지변화4_5	Count	11	97	93	26	3	230
	안→문 % within 지지변화4_5	4.8%	42.2%	40.4%	11.3%	1.3%	100.0%
	단일화 평가 별	78.6%	90.7%	59.6%	33.3%	60.0%	63.9%
	Count	1	8	37	28	2	76
	안→기타 % within 지지변화4_5	1.3%	10.5%	48.7%	36.8%	2.6%	100.0%
	단일화 평가 별	7.1%	7.5%	23.7%	35.9%	40.0%	21.1%
Total	Count	14	107	156	78	5	360
	% within 지지변화4_5	3.9%	29.7%	43.3%	21.7%	1.4%	100.0%
	단일화 평가 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후보/정당 호감도 (0점 매우 싫음, 5점 중간, 10점 매우 좋음) : 박 후보 불안 요인

- * 안→문 지지유지에는 인물호감도(6.9점)가 당 호감도(5.8점) 보다 작음
- * 안→박 이탈자의 경우 박근혜 호감도, 새누리당 호감도 우세. 정치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성향
- * 안→ 기타 이탈자의 경우 : 박/새누리, 문/민주 호감도 공히 비호감 (4.5)

현재 전체 응답자들의 각 후보 및 각 정당 호감도 점수를 보면 박근혜 후보 5.4점, 새누리당 4.8점인 반면 문재인 후보 호감도 점수는 5.6점, 민주통합당 호감도 점수는 5.0점이다. 단일화 이후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있지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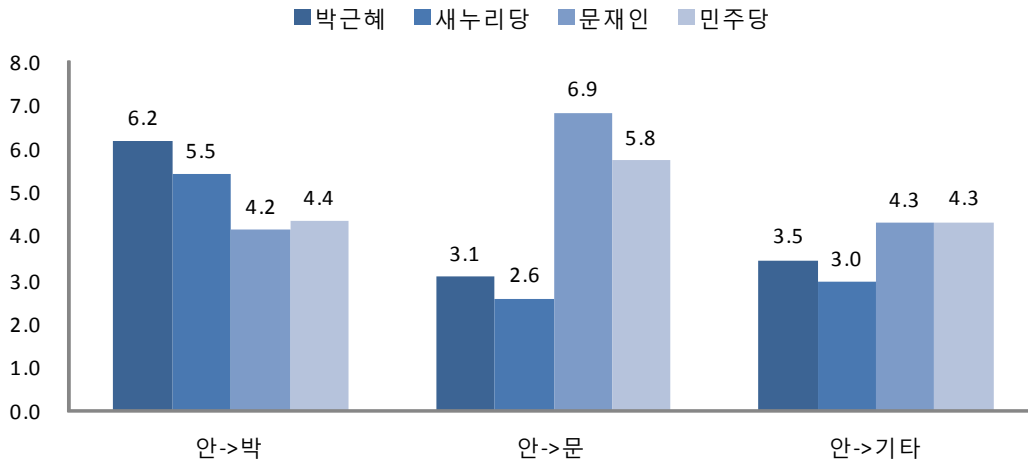
특히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경우 새누리당 호감도 3.1점, 민주통합당 호감도 5.2점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비호감이 강하고, 박근혜 호감도 점수는 3.6점, 문재인 호감도 점수는 5.9점으로 높다. 특히 문 지지 유지들의 경우 문재인 후보 호감도가 6.9점, 민주당 호감도가 5.8점으로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박으로 이탈한 안철수 지지층에서는 박근혜 후보 호감도가 6.2점, 새누리당 호감도가 5.5점으로 친박, 친새누리당 정서를 보인 반면 문재인 호감도가 4.2점, 민주당 호감도가 4.4점으로 중간에 못미쳐 문재인후보, 민주당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냉담한 편이다.

관심이 모이고 있는 안철수 지지자 중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층의 경우 박근혜 후보 호감도 점수가 3.5점, 새누리당 호감도 점수는 3.0점으로 상당히 반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박/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지만 호감/비호감 경계선인 5점에 못 미쳐 역시 비호감 정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이탈이 문재인/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정서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 비해 문/민주당에 높은 호감도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근혜 후보 지지로 이전하기 보다는 문/민주당 지지로 움직이거나 기권이라는 선택 중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림1] 안철수 이탈유형별 후보/정당 호감도 점수



경제인식 악화 총 안지지 부동산 높아, 경제 잡아야 안 지지 부동산 잡는다

- 안->문 유지층 38.3% “가정경제 나빠져”, 73.2% “국가경제 악화”
- 안->박 이탈층의 39.2% “가정경제 나빠져”, 69.2% “국가경제 악화”
- 안->기타/미결정층의 52.8% “가정경제 나빠져”, 68.1% 국가경제 악화

한편 안철수 지지이탈 유형별로 국가경제인식과 가정경제인식을 비교해보면 국가경제인식의 경우 지지이탈유형과 상관 없이 나빠졌다는 인식이 70% 전후로 높아 큰 차이가 없었던 반면, 가정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문 지지유지자나 박 지지유지자의 경우 가정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이 각각 38.3%, 39.2%로 비슷했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안철수 지지자 중 기타부동층으로 빠진 이탈자 중에서는 무려 52.8%(매우 악화 12.5%, 대체로 악화 40.3%)가 가정경제상태에서의 체감도가 나빠진 응답자들이다. 가정경제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부동산으로 전락시키는데 작용했다면 반대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탈한 부동층의 지지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10] 안철수 지지층 이탈유형별 가정경제에 대한 평가(%)

		가정 회고역					Total
		매우 악화	약간 악화	현상유지	약간 호전	매우호전	
안->박	Count	5	15	26	5	0	51
	% within 지지변화4_5	9.8%	29.4%	51.0%	9.8%	.0%	100.0%
	% within 가정 회고역	16.1%	13.4%	14.9%	19.2%	.0%	14.8%
안->문	Count	17	68	122	14	1	222
	% within 지지변화4_5	7.7%	30.6%	55.0%	6.3%	.5%	100.0%
	% within 가정 회고역	54.8%	60.7%	69.7%	53.8%	100.0%	64.3%
안->기타	Count	9	29	27	7	0	72
	% within 지지변화4_5	12.5%	40.3%	37.5%	9.7%	.0%	100.0%
	% within 가정 회고역	29.0%	25.9%	15.4%	26.9%	.0%	20.9%
Total	Count	31	112	175	26	1	345
	% within 지지변화4_5	9.0%	32.5%	50.7%	7.5%	.3%	100.0%
	% within 가정 회고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1] 안철수 지지층 이탈유형별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

지지변화4_5 * 국가회고역 Crosstabulation

		국가 회고역					Total
		매우 악화	약간 악화	현상유지	약간 호전	매우호전	
안->박	Count	8	28	14	2	0	52
	% within 지지변화_5	15.4%	53.8%	26.9%	3.8%	.0%	100.0%
	% within 국가 회고역	11.0%	15.9%	17.1%	12.5%	.0%	14.9%
지지변 화_5 안->문	Count	47	117	54	6	0	224
	% within 지지변화_5	21.0%	52.2%	24.1%	2.7%	.0%	100.0%
	% within 국가 회고역	64.4%	66.5%	65.9%	37.5%	.0%	64.4%
안->기타	Count	18	31	14	8	1	72
	% within 지지변화_5	25.0%	43.1%	19.4%	11.1%	1.4%	100.0%
	% within 국가 회고역	24.7%	17.6%	17.1%	50.0%	100.0%	20.7%
Total	Count	73	176	82	16	1	348
	% within 지지변화_5	21.0%	50.6%	23.6%	4.6%	.3%	100.0%
	% within 국가 회고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안철수 지지층의 표심향방

(1) 변수 :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

[정권교체론] 정권교체론에 동의 높아 73.6%
 안→문 유지자 230명 중 199명 86.6% 동의
 안→박 이탈자 53명 중 21명 39.6% 동의
 안→부동층/기타 75명 중 44명, 57.9% 동의

안철수 지지자들의 정치적 태도에서 정권교체론에 대한 동의가 높다는 것은 역시 여권보다는 이후 야권의 잠재적 지지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하여 전체 유권자에서는 56.0%가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안철수 지지층 359명 중에서는 73.6%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지지유지자 230명 중에서 86.6%가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박근혜 후보 이탈자 중에서는 39.6%만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75명 중에서는 57.9%가 정권 교체, 단일후보 지지론에 동의하여 이후 문재인 후보의 지지기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12] 안철수 지지이탈 유형 별 정권교체론에 대한 태도(%)

지지변화4_5 * 14.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rosstabulation

		14.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otal
		①매우 동의 한다	②대체로 동의 한다	③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④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안→박	Count	4	17	22	9	1	53
	% within 지지변화4_5	7.5%	32.1%	41.5%	17.0%	1.9%	100.0%
	% within 14.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2%	12.3%	33.8%	34.6%	25.0%	14.8%
지지변화4_5 안→문	Count	111	88	24	5	2	230
	% within 지지변화4_5	48.3%	38.3%	10.4%	2.2%	.9%	100.0%
	% within 14.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8.1%	63.8%	36.9%	19.2%	50.0%	64.1%
안→기타	Count	11	33	19	12	1	76
	% within 지지변화4_5	14.5%	43.4%	25.0%	15.8%	1.3%	100.0%
	% within 14.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7%	23.9%	29.2%	46.2%	25.0%	21.2%
Total	Count	126	138	65	26	4	359
	% within 지지변화4_5	35.1%	38.4%	18.1%	7.2%	1.1%	100.0%
	% within 14.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권심판론과 야당견제론의 공존] 여야 동시심판론 대 순수 정권심판론 38.7% 대 37.5%
 - 안→기타/미정층 : 동시심판론 37.8% 대 정권심판론 31.1%, 야당심판론 17.6%

정권심판론에 대한 공감감이 크기는 하지만 지난 3월 조사에서 무책임한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시에 공감하는 정권/야당 동시견제론도 높다. 안철수 지지층의 37.5%가 순수 정권심판론자(여당의 야당 견제론에는 동의하지 않는 층)인 반면 여야 동시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38.7%로 적지 않았다. 특히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층에서는 정권심판 뿐 아니라 야당견제론에 대한 공감하는 상층적 태도 층이 37.8%, 순수 정권심판론에 공감하는 응답은 31.1%로 평균에 못 미친 반면, 무책임 야당에 표를 주지말아야 한다는 야당견제론에 공감했던 응답자가 17.8%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권심판론에 공감 하더라도 안철수 지지층을 모두 문재인 후보 진영이 흡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13] 안철수 지지이탈 유형 별 정권심판론-야당견제론 교차태도 유형 (%)

		정권 심판-야권비토 태도 Crosstabulation				Total
		상층적 태도	정권심판론	무책 임야당론	무입장	
안->박	Count	21	10	17	3	51
	% within 지지 변화4_5	41.2%	19.6%	33.3%	5.9%	100.0%
	% within 정권 심판-야권 비토 태도	15.6%	7.6%	32.7%	9.7%	14.6%
지지 변화4_5 안->문	Count	86	98	22	18	224
	% within 지지 변화4_5	38.4%	43.8%	9.8%	8.0%	100.0%
	% within 정권 심판-야권 비토 태도	63.7%	74.8%	42.3%	58.1%	64.2%
안->기타	Count	28	23	13	10	74
	% within 지지 변화4_5	37.8%	31.1%	17.6%	13.5%	100.0%
	% within 정권 심판-야권 비토 태도	20.7%	17.6%	25.0%	32.3%	21.2%
Total	Count	135	131	52	31	349
	% within 지지 변화4_5	38.7%	37.5%	14.9%	8.9%	100.0%
	% within 정권 심판-야권 비토 태도	100.0%	100.0%	100.0%	100.0%	100.0%

(2) 문재인/민주당에 대한 미온적 태도

[문후보에 대한 태도] 인물 보면 누가 대통령감인가? 문재인 51.7%, 박 17.0%, 없다 27.1%
 안->문 유지자 : 74.7%(171명/229명), 박 5.2%, 없다 16.6%
 안->박 이탈자 : 72.2%(39명/54명)가 박근혜, 문재인 1.9%, 없다 20.4%
 안->부동층/기타 : 13.3%(10명/75명)가 박, 17.7%(13명) 문, 적합후보 없다 64.0%

높은 정권교체에 대한 공감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지가 문재인 후보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역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가 미온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안철수 지지자중 정당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인물 만 보면 누가 대통령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절반 수준인 51.7%만이 문재인 후보를 골랐고,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가 17.0%, 없다는 응답도 27.1%나 되었다.

문재인 후보 지지가 유지된 층에서는 74.7%가 문재인 후보를 뽑은 반면 박근혜 후보로 이탈한 층에서는 반대로 72.2%가 박근혜 후보를 뽑았다. 그러나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층은 박근혜 후보를 뽑은 응답이 13.3%, 문재인 후보를 뽑은 응답은 17.7%에 불과했고, 적합한 후보가 없다는 냉소적 답변이 64.0%나 되었다. 정권교체론에 대한 공감을 실질적인 야권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응답자들에게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과 평가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던져졌다.

[문 후보에 대한 지원] 안 지지자 : 문재인 도와야 한다 63.4%, 정치계속해야 77.2%
 안->문 유지자 : 문 후보 적극 도와야 83.4%(191명/230명)
 안->박 이탈자 : 13.2 %(8명/53명)
 안->부동층/기타 : 38.1%(29명/75명) 문 적극 도와야, 61.9%는 문 지원에 공감 안해

전체적으로 보면 안철수 지지자 359명 중 77.2%는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정치계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63.4%는 문재인 후보를 적극 도와야 한다고 보았다.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응답이다. 그러나 이탈유형별로 보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문지지 유지자의 경우 83.4%가 안철수 후보가 적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본 반면, 박 이탈자의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은 13.2%에 불과하다. 특히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층에서는 38.1%만 문 후보에 대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61.9%는 안철수 후보의 문 후보 지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표14] 인물요인만 고려 시 대통령 적합도(%)

지지변 화4_5 * 4.여야 또는 정당을 떠나 인물만 놓고 볼 때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rosstabulation

4.여야 또는 정당을 떠나 인물만 놓고 볼 때 대통령감으로 적합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다른 후보	없다	Total
안->박	Count	39	1	1	2	11	54
	% within 지지변화4_5	72.2%	1.9%	1.9%	3.7%	20.4%	100.0%
	인물 적합도별	63.9%	.5%	50.0%	15.4%	11.3%	15.1%
지지변 화4_5 안->문	Count	12	171	0	8	38	229
	% within 지지변화4_5	5.2%	74.7%	.0%	3.5%	16.6%	100.0%
	인물 적합도별	19.7%	92.4%	.0%	61.5%	39.2%	64.0%
안->기타	Count	10	13	1	3	48	75
	% within 지지변화4_5	13.3%	17.3%	1.3%	4.0%	64.0%	100.0%
	인물 적합도별	16.4%	7.0%	50.0%	23.1%	49.5%	20.9%
Total	Count	61	185	2	13	97	358
	% within 지지변화4_5	17.0%	51.7%	.6%	3.6%	27.1%	100.0%
	인물 적합도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15] 안철수 후보의 문 후보 지원에 대한 태도(%)

지지변 화4_5 * 7.앞으로 안철수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문재인후보를 적극 도와야 한다
Crosstabulation

7.앞으로 안철수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문재인후보를 적극 도와야 한다

		①매우 공감한다	②대체로 공감한다	③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④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Total
안->박	Count	4	3	26	20	0	53
	% within 지지변화4_5	7.5%	5.7%	49.1%	37.7%	.0%	100.0%
	문 지원 태도별	3.7%	2.5%	28.9%	50.0%	.0%	14.8%
지지변 화4_5 안->문	Count	96	95	31	6	1	229
	% within 지지변화4_5	41.9%	41.5%	13.5%	2.6%	.4%	100.0%
	문 지원 태도별	89.7%	79.2%	34.4%	15.0%	100.0%	64.0%
안->기타	Count	7	22	33	14	0	76
	% within 지지변화4_5	9.2%	28.9%	43.4%	18.4%	.0%	100.0%
	문 지원 태도별	6.5%	18.3%	36.7%	35.0%	.0%	21.2%
Total	Count	107	120	90	40	1	358
	% within 지지변화4_5	29.9%	33.5%	25.1%	11.2%	.3%	100.0%
	문 지원 태도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투표 동기의 약화

[적극적 투표의사층] 안 지지자 중 적극적 투표의사층 71.5%
안->문 유지자 230명 중 188명 81.7%, 안->박 이탈자 53명 중 40명 75.5%
안->부동층/기타 75명 중 28명 37.3%만 “반드시 투표하겠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전체 적극적 투표의사층은 71.5%로 나타났다. 그 중 문재인 지지유치층에서 81.7%로 반





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에 다소 못 미치지만 박근혜 후보로 이탈한 층에서도 75.5%가 적극적인 투표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안 지지층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7.3%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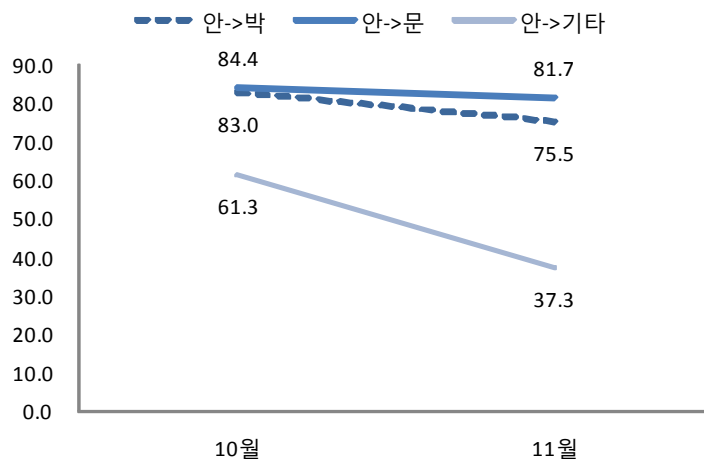
이들의 지난 10월 조사에서의 적극적 투표의사비율을 보면 문지지 유지층에서는 10월 조사에서도 84.4%, 박지지 이탈층은 83.0%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반면 기타부동층으로 이탈한 층의 경우 10월 조사에서는 61.3%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을 밝힌 층이었다. 적극적 투표 의사층이 한달 사이에 24.0%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이번 단일화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투표선호에서는 부동층을, 투표행태에서는 적극적 투표의사의 약화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표16] 안철수 지지 이탈유형별 투표의사(%)

지지변화_5 * 1.12월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Crosstabulation

		1.12월에 열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 않겠다	아마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아마 투표할 것이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모름/무응답	Total
안->박	Count	0	1	3	9	40	0	53
	지지 변화별	.0%	1.9%	5.7%	17.0%	75.5%	.0%	100.0%
	투표 의향별	.0%	7.7%	9.4%	22.0%	15.6%	.0%	14.8%
지지변화_5 안->문	Count	3	2	8	28	188	1	230
	지지 변화별	1.3%	.9%	3.5%	12.2%	81.7%	.4%	100.0%
	투표 의향별	20.0%	15.4%	25.0%	68.3%	73.4%	100.0%	64.2%
안->기타	Count	12	10	21	4	28	0	75
	지지 변화별	16.0%	13.3%	28.0%	5.3%	37.3%	.0%	100.0%
	투표 의향별	80.0%	76.9%	65.6%	9.8%	10.9%	.0%	20.9%
Total	Count	15	13	32	41	256	1	358
	지지 변화별	4.2%	3.6%	8.9%	11.5%	71.5%	.3%	100.0%
	투표 의향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2] 안철수 지지 이탈유형별 적극적 투표의사 총 변화(%)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j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18대 대선 KEPS(Korean Election Panel Studies) 패널조사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번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EAI는 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 대선패널조사, 2008년 총선패널조사, 2010 제5회 지방선거 패널조사에 이어 2012년에는 총선패널조사 2회, 대선 패널조사 5회 등 총 7회(wave)를 진행한다.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총선 1차 조사	총선 2차 조사	대선 1차 조사	대선 2차 조사	대선 3차 조사	대선 4차 조사	대선 5차 7차 조사
3.29 선거 운동 개시	4.11 총선 직후	대선 D-150	대선 D-60	대선 D-20	대선 D-7	12.19 대선 직후
패널특성과 투표형태	투표행태와 요인	지지도와 인물요인	표의 이동과 원인	무당파 변동과 이슈	선거예측과 미디어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근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혁(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대선3차 패널조사 개요

조사일시	2012년 11월 25 - 27일 (3일간)
표본크기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416명
표본추출	지역·성·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한 2000명 패널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표집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2.5%
패널유지율	70.8% (최초 패널 2,000명 기준)





2012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 110호 "2012 총선·대선 1차 패널조사의 주요 결과" 정원철. (2012. 4. 9)
- 111호 "여야 경합국면의 원인과 전망" 정한울. (2012. 4. 9)
- 112호 "유권자 패널의 4.11 총선평가" 정원철. (2012. 4. 23)
- 113호 "4.11 총선과 대선 정국" 이곤수. (2012. 4. 23)
- 114호 "세계인의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정원철. (2012. 4. 26)
- 115호 "세계인의 눈에 비친 17개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정원철. (2012. 5. 11)
- 116호 "2012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로 본 권력지도의 변화와 대선 정국 전망" 정한울.(2012. 5. 31)
- 117호 "여론으로 본 경선국면 전환기의 대선구도 평가" 정한울. (2012. 7. 1)
- 118호 "안철수 현상의 진화? 안철수 바람의 연속성과 차별성" 정한울. (2012. 7. 29)
- 119호 "박근혜 현상 vs. 안철수 현상의 충돌: 지지요인 및 후보 이미지 포지셔닝 맵" 정한울. (2012. 9. 2)
- 120호 "새누리당 경선 직후 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이곤수 2012-09-07
- 121호 "안 출마 이후 선거구도 변화: 당선가능성은 안철수, 단일후보는 안·문 팽팽" 정한울 (2012. 9. 23)
- 122호 "2012 대선2차 패널조사 유권자 지지행태 변동의 크기와 원인" 이곤수·정원철 (2012. 10. 21)
- 123호 "2012 대선2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2012. 10. 25)
- 124호 "세 후보 약점이 공존하는 균형 : 후보등록 한달 전 대선여론" 정한울 (2012. 10. 28)
- 125호 "단일화 파행의 결과 : 부동층 늘고, 안 하락 문 강도 약화" 정한울 (2012. 11.18)

2012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2-01호. "2012 어젠다 : 어젠다를 보면 2012년이 보인다" 정한울 (2012. 1. 5)
- 2012-02호.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장승진 (2012. 4. 25)
- 2012-03호. "부동층의 표심 이동과 이슈의 영향력 분석" 박원호 (2012. 4. 25)
- 2012-04호. "여론으로 본 4.11 총선평가와 대선 쟁점" 정한울 (2012. 4. 25)
- 2012-05호.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 10년새 570만표 불어난 5060세대가 대선 좌우한다" 정한울 (2012. 7. 25)
- 2012-06호. "한 줄의 카피전쟁, 대선 슬로건 1라운드 경쟁 결과: 수도권 3040세대 무당파층 FGD 결과를 중심으로" 정한울 (2012. 8. 3)
- 2012-07호. "출사표를 통해 본 대선유력주자 인지지도(cognitive map)" 정한울. (2012. 8. 12)
- 2012-08호.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를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지역투표 약화될 것인가? 교차압력(cross-pressures)이 변수" 정한울. (2012. 8. 31)
- 2012-09호. "2012 대선 불확실성 특성 분석 : 적대적 이분법 구도의 약화와 여당 전략 변화" 정한울 (2012. 9. 21)
- 2012-10호. "제18대 대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의 전망과 한계" 장승진. (2012. 10. 21)
- 2012-11호. "수도권 40대 무당파의 대선경쟁 한 달 평가: 기대와 실망의 공존" (FGD결과 분석) (2012. 10. 29)
- 2012-12호. "2012 삼국지 최종 승자 결정할 세대변수 점검" 정한울. (2012. 10. 29)
- 2012-13호. "문·안 확장성 격차요인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역선택 경향 변화" 정한울 (2012. 11. 7)
- 2012-14호. "2012 대선 여론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정한울 (2012. 11. 18)
- 2012-15호. "2012 대선 가를 스윙보터의 표심은?" 정한울 (2012. 11. 18)

2011년 EAI 여론분석 단행본 시리즈

- 여론분석6. 이내영·임성학(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EAI
- 여론분석7. 강원택·이내영(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EAI



